

## 무등산동부사무소 무등산 산음골 에코티어링 프로그램 운영 기본계획

### 1. 목적 및 배경

- 독수정원림의 여러 가지 나무에 담긴 이야기를 알 수 있다.
- 소쇄원을 탐방하며 자연을 정원에 담은 조상들의 슬기를 배울 수 있다.

### 2. 프로그램 운영 계획

- 프로그램 분야 : 자연해설
- 프로그램명 : 무등산 산음골 에코티어링
- 대 상 : 가족단위 20명 내외
- 운영기간 : 20.4.1.(수) ~ 11.30.(월) 오전 9:00~12:00
- 운영형태 : 3시간
- 장 소 : 담양 독수정, 소쇄원 일원
- 주요내용 : 무등산권 원림, 선조들의 자연친화적인 삶
- 소요예산 : 5백만원
- 참 가 비 : 무료(참가비 발생 시 참가비 기입)

### 3. 홍보계획

- 참가자 모집 : 전남 화순, 담양 복지센터, 학교, 소쇄원, 탐방지원센터 입구에  
서 참가자 모집 및 포스터, 안내책자 등 SNS 활용
- 참가자 접수 방법 : 온라인 접수 및 유선 접수
- 사업성과 홍보 :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토티 등 홍보(4월~11월, 분기1회)

### 4. 평가계획

- 만족도 조사 : 본사 주관 온라인 만족도 조사, 자체 설문지
- 효과성 조사 : 프로그램 운영 전·후 설문조사를 통한 결과 도출

### 첨부 1. 일정표

2. 프로그램 개요 및 시나리오
3. 현황사진 2장 원본(각 사진 용량 3MB 이상)

시기	강좌	시 간	주요 내용	장소
4월 ~11월	1강)국립공원 소개	1	- 오리엔테이션 - 국립공원의 이해와 무등산국립공원 소개 - 무등산권 원림 문화	무등산국 립공원동 부사무소
	2강) 독수정 에코티어링	1	- 에코티어링 - 독수정원림의 재미있는 나무이야 기와 오감체험 - 식물자원조사 목적과 방법	만연산 오감연결길
			<b>활동)</b> 에코티어링 활동지 제공 독수정의 방향, 절개를 상징하는 나무	
3강)소쇄원에 담긴 조상들의 슬기	1	- 소쇄원에 담긴 조상들의 슬기 - 국립공원 시설물 알아보기	무등산국 립공원동 부사무소	
			<b>활동)</b> 친환경 나무를 이용한 목공예 체험	

## 첨부2 : 프로그램 개요 및 시나리오

LIFE CYCLE | 전 연령

### 무등산 산음골 에코티어링



운영장소 독수정원림, 소쇄원 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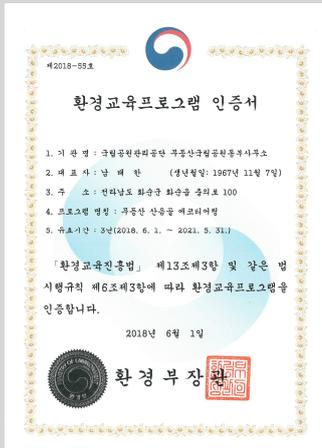
참가대상 가족

운영시간 4월~11월 / 180분

참가비용 무료

신청방법 국립공원공단 예약통합시스템(reservation.knps.or.kr/)  
전화문의 (061-371-1187)

환경부인증 제2018-55호



아이와 가족이 함께 무등산권 원림을 탐방하며 선조들의 자연친화적인 삶을 체험해 보고 에코티어링을 통해 생태감수성과 정서발달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제1강 국립공원 소개

제2강 독수정에서 에코티어링

제3강 소쇄원에 담긴 조상들의 슬기

## 무등산 산음골 에코티어링

활동장소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
소요시간	120분
참가대상	중·고등학생
참가인원	40명 내외

## 활동목표

- 독수정원림의 여러 가지 나무에 담긴 이야기를 알 수 있다.
- 소쇄원을 탐방하며 자연을 정원에 담은 조상들의 슬기를 배울 수 있다.

## 준비물

- 에코티어링 활동지, 나침판, 구급약품 등

## 유의사항

- 뱀, 벌 등 독성을 가진 동·식물에 주의한다.

단계	교육내용	교육시간
도입 (생각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첫만남(관계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원 확인 및 자연환경해설사와의 만남</li> </ul> </li> <li>• 안전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의사항 안내 및 안전체조</li> </ul> </li> </ul>	30분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에코티어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절개를 상징하는 나무를 찾아라! 모둠 활동</li> </ul> </li> <li>• 독수정원림의 재미있는 나무이야기와 오감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롱나무 간지럼 태우기, 댓잎 차 맛보기, 자연의 소리듣기</li> </ul> </li> <li>• 소쇄원에 담긴 조상의 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연과 조화를 추구한 소쇄원의 건축과 조경 이야기</li> <li>- 아름다운 자연에서 문학의 꽃을 피운 선비정신</li> </ul> </li> </ul>	140분
마무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립공원에 대한 느낌 공유하기</li> </ul>	10분

## 시나리오

### 첫만남

안녕하십니까. 자연환경해설사 000입니다.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를 찾아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무등산은 등급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고귀한 산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에 걸맞게 최고봉인 천왕봉을 중심으로 서석대, 입석대, 광석대 등 수직 절리상의 암석이 석책을 두른 듯 치솟아 장관을 이룹니다. 봄에는 진달래, 여름에는 참나리, 가을에는 단풍과 억새, 겨울에는 설경 등 사계절 생태경관이 뚜렷하며 멸종위기야생생물 수달, 하늘다람쥐, 으름난초 등이 서식하는 우수한 생태계를 자랑하는 곳입니다. 무등산은 광주, 화순, 담양을 아우르는 산으로 오늘은 무등산국립공원 중에서 가사문학의 산실이라고 불리는 담양지역을 둘러보며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 가사문학의 산실 담양

무등산국립공원 담양분소의 주소지가 2019년 2월부터 남면에서 가사문학면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남면에 살고 계신 주민들은 나이가 많은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남면’이라는 두 글자에서 ‘가사문학면’ 다섯 글자로 꽤나 어렵게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주민의 70%가 찬성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동, 서, 남, 북 방위로 지역 명칭을 정하는 것은 일제강점기 때 정해진 것입니다. 주민들은 남면이라는 명칭이 일제의 잔재라고 생각하여 2019년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해 명칭을 변경하는 것에 적극 찬성한 것입니다. 고전문학 중에서도 우리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는 데 가장 적합한 시가 장르로 평가받는다는 장르가 가사문학인데요. 가사문학의 대표작인 정철의 <성산별곡>과 송순의 <면앙정가> 등 18편의 가사문학이 이곳에서 탄생했기 때문에 가사문학면이라는 명칭이 주민들에겐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당시 이 주변의 유학자들이 소쇄원, 환벽당, 식영정 등을 찾아 학문을 하고 풍류를 즐겼는데 담양이 이런 역사적인 문학의 산실임을 알리고 또 가사문학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2000년에 가사문학관이 열기도 하였습니다.

담양의 대표적인 정자는 송철, 송시열, 기대승 당대 최고의 선비들이 수양과 학문을 닦았다고 전해지는 소쇄원과 그 외에도 식영정, 면앙정, 명옥헌, 송강정, 독수정, 상월정, 연계정, 관어정, 남극루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주변에 위치한 정자들과 성격이 조금 다른 독수정을 오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 산음골에코티어링(산음교~독수정)

자 지금 여러분께서 서계신 곳은 산음교입니다. 지금부터 독수정까지 올라가면서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다소 가사문학 하면 딱딱하게 다가 올 수 있는 것들이 저와함께 퀴즈를 맞추므로 무등산권 가사문학의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라가시면서 주변을 둘러보며 문제를 맞추어 보세요.

## 산음골 오리엔티어링

1. 산음골에서부터 ~독수정까지 절개를 상징하는 나무를 찾아보세요.

2. 반달이를 이겨라 ! 디비디비딤

3. 간지럼을 타는 나무를 찾아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이름을 아는데로 적어보세요.

4. 옛선조들의 친환경적인 천연염색체험을 선생님과 함께 해보세요.  
(나만의 손수건만들기)

5. 나침반을 가지고 독수정이 어느 방향을 가르키는 지 찾아보세요.

6. 대나무 숲과 함께 댓잎차를 마시며 고려시대 우리 선조들의 삶을 느껴보세요.



무등산국립공원 산음골 에코티어링은 가족이 함께 무등산권 원림을 탐방하며 선조들의 자연친화적인 삶을 체험해보고 에코티어링을 통해 생태적 감수성과 정서발달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반달이(달콩이)를 이겨라 디비디비딤!

어린이 가족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 아이들이 지루함을 느끼지 않고 국립공원의 깃대종과 함께하는 게임, 반달곰 탈이나 수달 탈을 쓴 해설사와 함께 가위바위보를 하며 깃대종에 대해 설명해본다.

### 천연염색체험(계절성 이벤트 프로그램)

옛선조들의 지혜와 과학을 엿볼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이다. 시간적여유가 있는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해 볼수 있다.

여러분 천연염색은 무엇을 천연염색이라고 할까요?

꽃잎, 식물의 줄기, 과일껍질 등 자연재료를 이용하여 염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천연염색은 화학약품을 쓰지 않아 공기나 물을 오염시키지 않으며 피부를 건강하게 해주고 빛깔이 곱고 잘 바래지 않기 때문에 옛 선조들의 과학과 지혜를 엿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천연염색의 색깔이 주는 효능들이 있는데요.

- 치자염색(황색) : 기쁨, 자신감, 행복감을 가져다 줍니다.
- 소목염색(적색) : 혈압, 혈액순환, 빈혈 등에 효과/ 생성과 창조, 애정과 적극성을 나타내는 색입니다.
- 쪽 염색(청색) : 심신의 스트레스 완화에 효과/ 창조, 생성, 신생, 복을 비는 색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치자와 소목을 끓인물을 준비했는데요. 앞에 있는 손수건을 고무줄로 묶어서 염색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홀치기 염색)

### 절개를 상징하는 독수정

무등산 자락은 정자문화가 많습니다. 주변에는 양산보의 소쇄원이나 임억령의 식영정, 오이정, 명옥헌, 송강정, 면앙정 등 유명한 정자문화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독수정은 무등산 자락에 위치한 이들 정자문화의 원조로 꼽힙니다. 무등산뿐만 아니라 전남 지역을 통틀어서도 가장 오래된 산정입니다. 하지만 전남도 기념물 제 61호로 지정된 것은 독수정이 아닌 정자 주변의 율림입니다. 지금부터 독수정이 문화재로 지정을 받지 못했지만 특별한 이유를 찾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있는 정자들이 16세기 조선시대에 만들어져 사림이 학문을 닦고 풍류를 즐기는 가사문화 활동의 터전이었다면 독수정은 이들보다 역사가 더 오래된 고려 공민왕 때 복도안무사 겸 병마원수를 거쳐 병부상서를 지낸 전신민이 세운 것입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일백 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이 시의 의미를 아시나요? 이 시는 이방원이 정몽주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지어 부른 「하여가」의 화답시로 「단심가」라 합니다. 이미 기울어 가고 있던 고려이지만 끝까지 굳은 결의를 지키려는 유학자의 자세와 두 왕조를 섬기지 않는 작자의 일관된 신념이 잘 나타난 시입니다. 정몽주는 이 단심가로 굳은 절의를 보임으로써, 끝내 이방원의 무리에게 무참하게 죽음을 당하고 말지요.

이런 정몽주를 존경했던 서은 전신민은 고려가 망한 후(정몽주 살해 후 내려와 은신) 벼슬을 버리고 이곳으로 내려와 독수정(獨守亭)을 건립하여 생활하였습니다. 태조 이성계가 여러 번 불렀으나 나아가지 않고 두 나라와 두 임금을 섬기지 않을 것을 다짐하였다고 합니다.

제가 드린 나침판으로 독수정의 방향을 확인 하셨나요? 네 독수정은 특이하게도 건물의 방향이 북쪽을 향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북쪽을 향해 가면 무엇이 있을까요? 당시의 수도인 송도입니다. 매일 아침이면 조복을 입고 임금이 계신 북쪽 송도, 지금의 개성을 향해 절을 올리기 위해서 건물이 남향이 아닌 북향으로 지었다고 합니다. 전신민의 절개를 건축양식에서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퀴즈~ 독수정은 어떤 한자를 쓸까요?

1390년을 전후해서 처음 지어진 것으로 보이는 독수정이라는 이름은 당대의 시인 이태백의 시 중 '백이숙제는 누구인가, 홀로 서산에서 절개를 지키다 굶어죽었네(夷齊是何人 獨守西山餓 이제시하인 독수서산아)'에서 따와 홀로 독, 지킬 수, 정자 정 '독수정(獨守亭)'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처럼 독수

정은 충신의 절개를 상징하는 정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각종 이권과 권력을 좇아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가 짚어봐야 할 부분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현재의 독수정은 1891년 후손에 의해 재건된 것으로 1915년과 1972년에 중수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자 건물이 크게 변형되어 독수정 자체는 기념물로 지정되어 못했습니다. 대신 정자 주변의 원림만 지방기념물 제61호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는데 독수정원림이 중요한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 선비의 절개를 상징하는 대나무

‘나무도 아닌 것이 풀도 아닌 것이.....’ 조선 중기 윤선도 선생은 ‘오우가’란 시에서 대나무를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과연 대나무는 나무일까요 풀일까요? 줄기가 굵고 딱딱하며 30m 높이까지 자라는 것이 꼭 나무 같습니다. 하지만 식물학적으로 풀에 속합니다. 외떡잎식물로 부름켜가 없어 해가 바뀌어도 나 이태가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나무는 봄에만 쑥쑥 크고 더 이상 자라지 않습니다. 대나무는 매년 처음 땅속에서 올라오는 줄기로 평생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만큼 빠르게 자라는데요. 죽순이 대나무로 자라려면 30~40일이 걸립니다. 그렇다면 대나무 속은 왜 비어 있을까요?

대나무가 한창 클 때는 1시간 동안 자라는 속도가 30년간 자라는 소나무 속도와 맞먹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빨리 자라는 이유는 생장점이 많아서입니다. 소나무는 줄기 끝에만 생장점이 있는데, 대나무는 마디마다 생장점이 있습니다. 또 빠르게 성장하면서 줄기의 벽을 이루는 조직은 엄청 빠르게 늘어나지만 속을 이루는 조직은 세포분열이 느려 대나무 속이 텅 빈 것입니다. 이와 같이 대나무가 맑고 절개가 굳으며 마음을 비우고 천지의 도를 행할 군자가 본받을 품성을 모두 지녔다 하여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대나무를 좋아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선비의 마음가짐으로 준비된 댓잎차를 마시며 소나무와 대나무 처럼 변치않는 지조와 함께 자연을 느끼며 쉬어보세요.

### 간지럼을 타는 “배롱나무”

단번에 오래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이 배롱나무는 올해도 어김없이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배롱나무가 불리는 이름은 많은데 첫 번째는 백일홍이라고 불립니다. 배롱나무꽃은 7월부터 9월까지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계속해 피고 지고를 반복하며 백일동안 피는 꽃입니다. 이렇게 백일 동안 붉은 꽃을 피운다고 하여 백일홍 나무라고 부르다가 점차 배롱나무가 되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실제로 백일홍은 배롱나무의 이명으로 국가표준식물목록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헷갈릴 수 있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백일홍이란 이름을 가진 식물이 하나 더 있기 때문입니다. 이름은 같지만 배롱나무와는 전혀 다른 식물입니다. 진짜 백일홍은 국화과의 한해살이풀이고, 배롱나무는 부처꽃과에 속하는 작은 키 나무입니다. 백일홍은 원래 잡초였으나 여러 화훼가들이 개량하여 현재의 모습이 되었다고도 하죠. 공통점이 있다면 이 백일홍도 백일동안 꽃을 피워 같은 이름이 붙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백일홍이 한 번 피운 꽃을

오래도록 유지하는 것과 달리 배롱나무는 가지에서 새로운 꽃을 반복해서 피워냅니다. 꽃이 다 떨어졌나 싶다가도 어느새 활짝 피는 것이 배롱나무입니다. 두 번째 별명은 간지럼나무입니다. 배롱나무는 구불구불 자라는 붉은 갈색의 매끄러운 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껍질을 벗기면 흰 속살이 드러나죠. 배롱나무 줄기를 손으로 문질러 보신 적이 있나요? 배롱나무의 줄기를 손으로 문지르면 나뭇가지 끝과 잎이 흔들립니다. 꼭 간지럼을 타는 것처럼요. 일부 지방에서 배롱나무를 간즈름나무 또는 간지럼나무라고 부릅니다. 정말로 나무가 간지럼을 타는 건 아닐 텐데요. 아직 배롱나무의 잎이 왜 흔들리는지는 확실하게 밝혀진 바 없다고 합니다.

### 소쇄원

이곳은 독수정과 다른 시대의 원림입니다. 조선시대 원림으로 가볍게 산책하 시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곳 소쇄원은 우리나라의 3대 정원 중 한곳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3대 정원이 어딘 줄 아십니까? 영양의 서석지, 보길도 세연정, 담양의 소쇄원이 우리나라 3대정원입니다. 소쇄원은 뒤에 보이는 안내도처럼 이렇게 생겼는데요.

소쇄원을 한자로 풀이하면 물 맑고 깊을 소 + 깨끗할 쇄 자를 써서 물 맑고 깨끗한 원림을 의미합니다. 즉 속세를 떠나 아름다운 곳 이라는 뜻입니다 왜 이런이름이 지어졌는지를 이야기 하려면 약 500년을 거슬러 올라가야기 때문에 조금 이따 시간이 되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소쇄원의 오리

이렇게 소쇄원 입구를 통과하시면 눈길을 끄는게 있는데 , 바로 오리입니다.

왜 소쇄원 앞에는 오리가 있을까요?

양산보가 어릴적 계곡에서 놀다가 물오리를 발견하고 따라와보니 지금의 소쇄원의 자리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눈을 떼지 못하고 언젠가는 이곳에 와서 살겠다는 뜻을 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후에 이곳으로 돌아와 소쇄원을 짓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쇄원 입구의 오리는 소쇄원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입구를 조금 지나와 이곳에서 보면 왜 소쇄원이 국내 최고의 원림이라 불리는지 아실수 있을 것입니다.

### 원림과 정원의 차이

자 이쪽에서서 소쇄원의 전경을 한번 쪽 들어봐보세요.

여러분 소쇄원은 원림일까요? 정원일까요?

둘다 비슷해서 정원이라기도 하는데 엄밀히 말하자면 원림입니다.

※사진 두장 첨부



자 어느쪽이 원림일까요?

대충 눈치 채셨죠? 네 맞습니다. 오른쪽이 원림입니다. 원림과 정원의 차이점은 나의 집 앞에 인공연못을 만들고 나무를 심고 꽃을 심어 인위적으로 작은 자연을 만드는 것을 정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소쇄원은 어떤가요? 동산과 숲의 자연스런 상태로 그대로 둔 뒤 빈공간에 집과 정자를 배치하여 자연안에 그대로 들어가는 방식으로 건축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자연적인 조경을 원림이라고 합니다.

소쇄원은 가면갈수록 볼거리가 많이 있는데요.잠깐 여기보이는 초과지붕으로 된 정자에서 쉬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 소쇄원이 지어진 배경

물소리와 자연의 소리를 들으면서 잠시 쉬어가보도록 할게요, 이 정자는 대봉대라는 곳인데요. 기다릴대+봉황봉 자를 써서 봉황처럼 귀한 손님을 기다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올 것을 500년 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들어오면서 소쇄원에 대해 설명하려면 몇 년을 거슬러 올라가야한다고 했죠?

네 500년입니다. 조선 중기까지 올라 가야 하는데요. 이집의 주인은 조선시대 개혁자인 조광조의 제자 양산보의 집입니다. 소쇄원이 지어진 배경에는 바로 조광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초고속 승진을 한사람이 2명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거북선을 만들어 왜군을 물리친 이순신과 왕에게 바른말을 하며 노예제, 서자제 폐지를 주장했던 조광조가 있습니다.

#### 소쇄원이 지어진 배경(양산보와 조광조)

우리 정치를 보면 항상 보수파와 개혁파가 있죠?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수의 훈구파, 개혁의 사림파 그런데 그 옛날처럼 양반과 노비라는 계급체계가 확실한 사회에서 노예제와 서자제 폐지를 주장했다라면 양반들의 반발이 심했겠죠? 그래서 훈구파의 계략에 의해 조광조가 숙청을 당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기묘사화 사건입니다.

훈구파는 흥경주의 딸이 후궁인 것을 이용하여 궁중 동산의 나뭇잎에 꿀로 주초위왕이라는 4글자를 씩니다. 나뭇잎을 그대로 두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을 벌레가 갉아먹어 이런 글자 모양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잎을 왕에게 보여 왕의 마음을 흔들리게 하였다고 합니다.



글자를 자세히보시면 주초

주+초가 합치면 = 조가 된다 그럼 바로 조씨가 왕이 된다는 뜻인데, 그게 바로 조광조다라고 몰아가는 것입니다. 이사건으로 인해 증종반정을 반역으로 몰아가 조광조는 한순간에 유배를 보내고 임금이 내린 독약으로 죽게됩니다. 이사건으로 인해, 조광조의 제자인 양산보는 충격을 받아 벼슬길을 등지게 되었고 고향으로 낙향하여 지금의 소쇄원을 지었다합니다. 이게 소쇄원이 지어지게 된 배경입니다. 양산보는 원통함과 울분을 참을 수 없어서 세상의 모든 것을 잊고 산에 들어가 살아야겠구나! 결심을 하고 경치 좋은 무등산 아래 조그마한 집을 짓고 두문 분출 하고 한가로이 살 것을 결심합니다.

### 대봉대

대봉대 옆에는 오동나무와 대나무가 심어져 있는데요, 이것은 태평성대가 되어 봉황이 오기를 갈망하는 상징성이 담겨있습니다. 봉황은 상상속의 새로 성대에만 나타나며 오동나무가 아니면 잎지를 앓고, 대나무 열매가 아니면 먹지 않기 때문에 봉황을 기다리는 마음에서 는 오동나무와 대나무를 심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어지러운 시대를 바로잡고 태평성대를 이끌어 나갈 영웅이 나타나기를 기원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오동나무는 봉황이 깃드는 상서로운 나무이므로 우리 조상들은 예로부터 오동나무를 신성한 나무로 여겨 나라에서 법으로 정해 함부로 베지 못하게 했습니다. 조선 명종 15년에 영천의 한 군수가 거문고를 만들려고 오동나무를 베었다가 벼슬에서 쫓겨났다는 기록이 있고 또 현종 11년에도 남포현감 최양필이 거문고를 만들려고 오동나무를 베었다가 파직을 당했다는 기록이 있으니 오동나무가 그 당시 얼마나 신성시 되던 나무였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애양단

소쇄원에는 3개의 대표적인 담장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인 이담장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애양단이라는 한자가 적어져 있습니다. 한번 읽어 보도록 할께요.

사랑애 + 별양 +담장단을 써서 한겨울에도 별이 잘들어 따뜻하다고 붙여진

이름인데요!

이 애양단은 한겨울에도 별이 많이들어 붙여진 이름이지만 효경에 의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마을을 마치 별이 드는 양이라는 의미에서 효심을 잊지 않기 위해 담장을 쌓고 동백나무를 심었다고 합니다.

### 오곡문

자 그리고 두 번째 담장인데요. 오곡문이라고 쓰여져있습니다. 외나무다리 밑에 계곡물이 5번 굽이쳐 흐른다해서 오곡문이라고 부른다 합니다.

담 아래 돌기둥을 만들고 계곡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한 오곡문이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 원림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여름과 같이 계곡에 물이 불어나더라도 오곡문을 통하여 물을 흘려보낼 수 있기 때문에 담장이 무너질 걱정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지혜까지 엿볼 수 있는 건축법입니다.

### 살구나무

여러분 혹시 소쇄원의 입장료가 얼마인 줄 아시나요? 네 2,000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바퀴 도시면서 무슨 2천원이냐 너무 비싸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소쇄원을 지으면서 양산보가 어떤마음으로 나무하나, 건물 하나씩 지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전혀 아깝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나무 하나에도 의미를 두며 심었는데요. 외나무다리 앞에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 줄 아시나요? 네 살구나무입니다. 살구나무 열매에는 우리몸의 염증을 제거해 주는 역할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산보는 내집에 오는 사람들이 모두가 무병장수 할 수 있고 건강하라는 의미에서 심었다고 합니다.

### 소쇄처사 양공지려

이 외나무다리를 건너면

소쇄처사 양공지려라는 담장이 보이는데요.

이것은 우암 송시열선생의 글씨로 소쇄공양산보의 초라한집이라는 문패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에 보이는 건물은 대충 어느역할을 하시는지 아시겠죠?

주인의 개인적인 공간으로

양산보는 이곳에서 주로 글을 쓰거나 독서를 하는 곳으로 이용했다고 합니다.

### 제월당

현판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제월당입니다. 이제월당은 비꺽제 + 달월 +집당 이라는 단어로 비개인 하늘에 상쾌한 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곳 제월당은 비개인 하늘에 상쾌한 달이라는 뜻으로 주인의 공간입니다. 제월당은 주로 글을 쓰거나 독서를 하는 곳으로 이용하였고 주인의 공간답게 제월당의 마루에서 보면 소쇄원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정철, 송시열, 기대승 등 당대 최고의 선비들이 이곳 제월당에서 수양과 학문을 닦았다고 전해집니다.

자 쉬시면서 저기 작은문이 보이시나요?

제월당에서 저 아래로 내려가려면 저문을 지나야하는데요. 곧곧히 서서 걸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다가 머리를 박습니다. 저 문은 고개를 숙이도록 만들어진 문인데요. 왜일까요? 양산보는 지나가는 이들이 모두 고개를 조아리도록 일부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공부하는 선비들은 겸허한 마음으로 예를 지키라는 묵언의 경고이기도 합니다. 네 그럼 또 잠시 쉬었다가 저 작은 문을 지나 광풍각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 광풍각

제월당은 주인이 거쳐하며 조용히 사색하는 공간이었다면 아래 광풍각은 어떤 곳일까요?

네 바로 지인들과 담소를 나누거나 시를 짓는 사랑방의 개념인데요.

주변을 둘러보세요. 앞에 흐르는 연못과 계곡이 있어 시원한 물소리를 들으며 시를 지으며 풍류를 즐길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시를 하나 읊어드리려고 합니다.

다들 자리에 앉아보세요.

소쇄원 제 20 영 玉湫橫琴(옥추횡금)

瑤琴不易彈 요금불이탄-거문고 , 타기 쉽지 않지만

舉世無種子 거세무종자-온 세상에 종자기 같은 친구 없구나

一曲響泓澄 일곡향홍징-맑고 깊은 물에 한 곡조 울리고 나면

相知心與耳 상지심여이-마음과 귀만이 서로 안다네.

이는 양산보와 김인후의 사귀를 나타내는 시로, 사귀를 고귀하게 생각하면서 ‘도’로 맺어진 우정을 나타냄이다

‘옥추횡금’은 조담 바로 위에 편편한 바위에서 그 아래 폭포소리를 들으며 거문고를 타는 풍류를 나타낸 말로 진실한 옛 사람의 사귀를 잘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도 이렇게 앉아 송강 정철, 하서 김인후, 면양 송순이 되어 자연을 느끼며 쉬면서 노래를 한번 해보시는것도 좋을것같습니다.

다 같이 한바퀴 도시면서 광풍각의 건물을 한번 둘러보세요. 사방이 마루로 뚫려 있고 가운데가 온돌방으로 만들어져 있어 별이 좋은 날이면 모든 문을 개방하여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자연을 즐길수 있고 추운 겨울날이면 문을 닫고 온돌에 불을 지펴 따뜻함을 나눌수도 있는데요.

### 광풍각

여기 광풍각에는 숨은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저를 따라 와보세요. 광풍각 뒤편에 이곳을 보시면, 온돌을 지피기 위한 아궁이가 있는데, 광풍각에는 굴뚝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된 것 일까요? 굴뚝은 어리로 갔을까요?

이것은 광풍각 마루 아래를 자세히 보시면 굴뚝이 있는 것을 확인 하실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굴뚝은 천장위에 만들고 연기가 위로 빠져 나가게 하는데 어찌 광풍각의 굴뚝은 마루 아래로 나져 있을까요? 여기에는 자연

을 활용하여 풍류를 즐기하고자 하는 선비들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광풍각앞에는 계곡 때문에 주변보다 차가운 공기가 있어 굴뚝에서 나온 연기를 위로 올라가지 못하게 잡게 되는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연기가 옆으로 잔잔하게 퍼져 나가면 마치 운해를 보는 듯한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또한 풍류를 즐기하고자 하는 선비들의 지혜와 과학을 엿볼수 있습니다. 너무 대단하지 않나요?

소쇄원은 자연을 그대로 유지한채 건물들과어우러져 아름다운 풍경을 볼수가 있는데요.

현대사회에서는 개발과 발전, 개인주의로 원림의 개념 보다는 내가 자연을 만드는 정원이라는 개념이 너무 일반화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립공원의 자연보전의식을 생각해 보면 옛 선비들의 원림을 짓는 정신과도 같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는 기회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 됩니다.

### 첨부3 : 현황사진



**【붙임2】 교보재 모음집 제출 양식(한글파일)**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 교구재 모음집**

**목 차**

1. 산음골 에코티어링 활동지
2. 선비옷과 교보재 사진

## 산음골에코티어링

개발자	전현옥(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_응용
가사문학으로 잘알려진 무등산권 문화에 대해 알아보고 그중에서도 독수정의 의미를 되살려 보며 활동 할수 있는 활동지 이다. 또 선비옷을 입고 가사문학권을 탐방해봄으로서 조선시대 정자문화에 한발 더 다가가 볼 수 있다.	
활용대상	전연령
활용시기	사계절
준비물	활동지, 나침판
소요시간	30분
제작비용	없음

### 산음골 오리엔티어링

1. 산음골에서부터 ~독수정까지 **절개를 상징하는 나무를** 찾아보세요.
2. **반달이를** 이겨라 ! **디비디비딤**
3. **간지럼을 타는 나무를** 찾아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이름을 아는데로** 적어보세요.
4. **옛선조들의 친환경적인 천연염색체험을** 선생님과 함께 해보세요.  
(나만의 **순수견만들기**)
5. **나침판을** 가지고 **독수정이 어느 방향을 가르키는** 지 찾아보세요.
6. 대나무 숲과 함께 **땃잎차를** 마시며 고려시대 우리 선조들의 **삶을** 느껴보세요.



무등산국립공원 산음골 에코티어링은 가족이 함께 무등산권 원림을 탐방하며 선조들의 자연친화적인 삶을 체험해보고 에코티어링을 통해 생태적 감수성과 정서발달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운영사진\_1설명)



(운영사진\_2설명)

### 운영방법

1. 첫 만남시 인사와 함께 참여자에게 에코티어링 활동지를 한 장씩 나누어준다.
2. 활동방법을 설명한다.
3. 활동지를 작성한다.
  - 절개를 상징하는 대나무, 매화나무, 국화 찾기
  - 반달이를 이겨라 디비딤을 통해 국립공원의 깃대종 알리기
  - 손수건 천연염색을 통해 옛선조들의 색감찾기와 지혜를 알아본다.
  - 나침판을 가지고 독수정의 위치 찾기를 함으로써, 독수정이 북향인 이유에 대해 알아본다.
  - 댓잎차를 마시며 독수정의 풍경과 자연을 느껴보는 시간을 갖는다.
4. 에코티어링의 답을 자연환경해설사와 같이 이야기 해본다.

### 향후방향

독수정만이 가지는 고유의 자연친화적인 삶을 이해할수 있도록하며, 가사문학권의 무등산원림 탐방을 통해 생태적 감수성 및 인문학에 쉽게 다가 갈수 있도록 지원해본다.

### 참고내용

#### ※천연염색

- 꽃잎, 식물의 줄기, 과일껍질 등 자연재료를 이용하는 천연 염색을 해본다. 천연염색은 화학약품을 쓰지 않아 공기나 물을 오염시키지 않으며 피부를 건강하게 해주고 빛깔이 곱고 잘 바래지 않는다. 옛 선조들의 과학과 지혜를 엿 볼 수 있다.
- 치자염색(황색) : 기쁨 , 자신감, 행복감을 가져다 줌.
- 소목염색(적색) : 혈압, 혈액순환,빈혈 등에 효과/ 생성과 창조, 애정과 적극성을 나타내는 색
- 쪽 염색(청색) : 심신의 스트레스 완화에 효과/ 창조, 생성, 신생, 복을 비는 색

### 주의사항

- 우천시 천연염색체험은 자연의 소리 느끼기 프로그램으로 대체 해 본다.